

보도시점 2024. 5. 31.(금) 11:00
2024. 6. 1.(토) 조간

배포 2024. 5. 31.(금)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 수산·육상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협력센터 지정
- 우리나라의 소해면상뇌증·아프리카마역·가성우역 청정국 지위 재인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한 전 세계 관계자들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우리나라의 동물(수산·육상)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 센터 지정을 승인하였고, ▲메갈로사이티바이러스감염증 명칭 변경 등 동물위생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하였으며, ▲프랑스의 에마뉼에 수베랑(Emmanuelle Soubeyran)을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하였다.

*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의 상세한 결과는 붙임 참조

우리나라 최초로 협력센터 지정을 주도한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과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력센터 지정을 통해 양 기관이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번에 획득한 협력센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앞으로도 국제 진단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대표단을 이끈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수석대표)은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 청정국 지위가 유지되었고, 앞으로도 동물 질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최소화해 나갈 것이며 동물위생과 복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 결과(상세)

2. 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개요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이동식 | (044-201-2511) |
| | | 담당자 | 사무관 안영창 | (044-201-2522) |
| <검역>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박경희 | (044-201-2071) |
| | | 담당자 | 서기관 이재명 | (044-201-2075) |
| <협력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 책임자 | 과 장 구복경 | (054-912-0458) |
| | | 담당자 | 연구관 이경기 | (054-912-0480) |
| <수산동물 총괄>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 어촌양식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박승준 | (044-200-5610) |
| | | 담당자 | 서기관 안종관 | (044-200-5625) |
| <수산동물 청정국>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방역과 | 책임자 | 과 장 권문경 | (051-400-5670) |
| | | 담당자 | 연구관 홍성열 | (051-400-5675) |
| | | 담당자 | 연구사 김재욱 | (051-400-5679) |
| <협력센터>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병리연구과 | 책임자 | 과 장 조미영 | (051-720-2470) |
| | | 담당자 | 연구관 김형준 | (051-720-2483) |



첫째, 100주년 기념 축하(요약)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인사들은 세계동물보건기구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였다.

이날 송 장관은 수십 년의 노력 끝에 우역(rinderpest)을 근절한 것은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첫 역사임을 강조하며 지난 100년간 전 세계 동물 질병 관리와 복지 개선에 노력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와 회원국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동물 보건과 복지 개선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해 렘피스킨(LSD)을 한 달 만에 안정화하였고 신속한 방역조치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방역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원헬스(one-health)*를 강조하는 세계동물보건기구와 함께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국이 처한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하였다.

*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

둘째, 「수산·육상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관련 세계 최초 협력센터 지정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금번 총회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신청한 수산·육상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국제 보급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센터의 지정을 승인하였다.

* (24.1월) 신청 → (24.3월) 생물학적표준·수산동물위생표준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 → (24.5월) 채택

동물 보건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WOAH로부터 협력센터 지위를 획득한 것은 우리나라 동물 질병을 연구하는 양 기관의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동물 질병 진단의 국제표준에 기여하고 WOAH 회원국들의 진단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국제적 리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양 기관이 의기투합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표준물질 구축의 핵심기술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 협력센터 업무 총괄 사무국을 두고, 수산·육상동물 분야별로 협력센터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WOAHI 지정 질병별 진단 표준물질의 개발 확대 및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기술의 국제적 지원 및 보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기준(수산동물 및 육상동물 위생규약) 논의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지역)에서 감수성 동물을 수입할 때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우유에서의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화 조건**을 통일하는 등 육상동물위생규약을 일부 개정하였다.

* (검사조건 강화) 백신접종 개체는 항원·항체 검사, 백신 미접종 개체는 항원검사

** pH와 관계없이 72°C에서 15초 이상 열처리 2회 또는 불활화 가능한 동등 조건

수산동물위생규약에서는 관련 규정(chapter)의 제목을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RSIV)에서 메갈로사이티바이러스감염증(*M. pagrus* 1)으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장(chapter)에 RSIV, 전염성비장신장괴사바이러스병(ISKNV), 터봇이리도바이러스병(TRBIV) 유전형을 모두 등재하였다.

육상동물 진단 및 백신 매뉴얼에서는 림프스킨 백신접종의 좋은 점이 큰 점을 명시하면서 백신의 품질보증 및 공정검증 등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수산동물 진단 매뉴얼에서는 가재전염병 및 노랑머리병의 병원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real-time PCR)이 개선 및 추가되었다.

그 외 용어(Glossary)의 정의, 가독성을 위한 편집 등에 관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다.

넷째, 동물 질병 청정국 지위 재인정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주요한 동물 질병에 대한 회원국의 청정국 지위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그간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 방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이번 총회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하였다.

붙임 2

「수산육상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WOAH 협력센터 개요

- (협력센터명) Reference materials of molecular diagnostic techniques in aquatic and terrestrial animal diseases
 - (목적) 동물 질병 유전자 진단에 모두 적용 가능한 표준물질의 국제 보급 및 세계 표준화를 위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농림축산검역본부 협업
 - (추진기관) 국립수산물과학원(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농림축산식품부)
 - * 담당 : 국립수산물과학원 김형준 연구관(센터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기 연구관
 - (협력분야) 동물 질병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보급 및 국제 표준화
 - (주요업무) 핵심기술*을 활용한 동물 질병 진단 표준물질 보급 등
 - * 유전자 진단검사에서 실험자, 분석 시약 및 실험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진단 표준물질 구축 기술 적용
 - 진단 표준물질에 대한 개발 및 유효성 검증 연구 수행
 - 표준 정량된 진단 표준물질을 WOAH 회원국에 공여
 - 진단 표준물질 수여 국가로부터 시험 결과 수령 및 분석
 - 검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전문 컨설팅 지원
 - 검출력이 미약한 국제 표준진단법의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 (의의)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 진단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국제적 진단 역량 강화 및 기술을 지원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및 국제표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 리더 역할 부여

< 세계동물보건기구 협력센터(WOAH Collaborating Center) >

- (주요 기능) 전문 분야* 연구, 기술개발·표준화, 교육, 정보 분석·보급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 6개 분야 : 동물건강관리(animal health management), 동물생산(animal production), 실험실 전문지식(laboratory expertise),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수의제품(veterinary products), 야생동물 건강과 생물다양성(wildlife health and biodiversity)
- (표준실험실과의 차이) 전문가 중심의 개별 실험실로 운영되는 표준실험실과 달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관 수준에서 운영

| 구 분 | 협력 센터 | 표준실험실 |
|------------|--------------------------|---------------------|
| 분야 | 특정 전문분야(6개) | 지정 질병 또는 병원체 |
| 주요기능 | 기술개발·표준화,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진단법 개발, 교육, 보급 |
| 담당 | 기관 또는 부서(Division) | 실험실/전문가(Expert) |
| 지정현황('23년) | 72개, 6개 분야, 30개국 | 266개, 108개 질병, 38개국 |
| 우리나라 보유 | - | 9개(육상 8, 수산 1) |